**사랑하는 보내는 선교사님께**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은혜 가운데 교회와 동역자님들께 주의 사랑으로 문안 드립니다.

지난해 12월 9일 한식 동영상 촬영은(영양밥, 밀쌈, 잡채, 매작과) 잘 마쳤고, 12월 14부터 크리스마스 선물 나눔 준비 배추 구입하고 김치를 담으면서 허리에 무리가 와서 고생 좀 했고, 12월 22일부터 거주증 신청 서류 준비하면서 집세 계약서를 집주인에게 요청했는데, 이곳의 물가 인상을 고려해서 부동산에 의뢰해 집세를 다시 책정하자**는** 문자 받고, 월세는 1년에 한 번 인상하는 전례를 따라 집세 인상이 6개월 밖에 지나지 않아서 지난해 6월 물가인상 %에 따라 추가분을 소급하기로 했고, 월세계약서는 올해 인상 시기에 다시 작성해 주겠다고 하여 집계약서 없이 12월 27일 거주증 신청 온라인 접수했습니다. 12월 29일 어머니 소천하시고 31일 장례식을 마쳤고, 2022년 1월 19일 거주증 인터뷰 및 서류를 접수했습니다. 1월 29일부터 토요일에만 4주 한식 온라인 수업이 시작되었고, 2월 2일 거주증을 우편으로 받았는데 2022년 7월 13일까지 6개월 연장을 받았습니다. 기도 요청을 문자로 요청하여 소식을 아는 동역자님들도 계시지만 많은 일이 있었던 2개월 동안의 일정을 어떻게 설명할 지 몰라서 간략하게 적으면서 소식을 전합니다.

저는 어머니가 살던 집에 저의 짐들이 있어서 제가 정리를 해야 하고 법적인 처리와 치과 임플란트 마무리를 위해 2월 23일 출발해서 24일 인천 도착할 일정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H부인의 큰 딸이 2명의 손자손녀를 데리고 친정에 와 있고 직장에 나가면서 이혼을 준비한다는데, 출산을 앞두고 직장을 쉬게 되고 코로나로 남편의 사업에서 수입도 없어 시아버지 돌아가신 후에 유산에서 1년 정도의 생활비를 요청했는데 거절당하면서 갈등이 시작되었다고 들었고, 막내딸은 취직을 했는데, 시외곽이라 운전을 배우고 있는데, 건강이 좋지 않고 지쳐 있는 H부인에게 성령의 위로와 기도가 필요합니다.

U부인 딸은 2월에 출산을 앞두고 있어서 순산의 기도요청을 부탁드리며, U부인은 한식 온라인 강좌를 수요일마다 4주 시작했는데, 현재 코로나와 딸의 뒷바라지 등으로 대면 교제가 원만하지 못합니다. 한식도 가르쳐 줄 것이 많고 복음적인 교제도 해야 하는데 주께 지혜를 구합니다.

N은 지난주 토요일에 출산 이후 3년만에 혼자 저의 집에 2시간 방문했습니다. 제가 N의 집을 주로 방문하는데, 저의 어머니 소천소식을 늦게 듣고는 남편이 두 딸을 보는 동안 잠시 왔었는데, 바라기는 이런 기회들이 가끔 있어서 복음과 성경을 나눌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세상에서 나그네로 살다 떠난 어머니와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사는 저의 삶이 별반 다르지 않음으로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어진 시간을 주님과 동행할 수 있기를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동역자님들의 삶에도 주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간구합니다.

2022. 2. 5. 김에스더 드림